

# 발효하는 책이 오래된 미래다

글 이명원 문학평론가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로서의 책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런 점에서 보면, 한 권의 책은 이 대중문화 시대에도, 철지난 생물학적 비유로 하면 '줄기세포'와 같은 것이다. 뿌리에서 퍼져나간다, 몸과 살과 피와 냄새의 총합을 이루는 우리의 몸이. 최근 문화예술계에선 '기초예술'이란 개념도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다. 기초예술이란 과거에는 파인아트(fine art)로 불렸던 문학, 음악, 연극, 무용 등의 고전적 예술장르의 현대적 명칭이다. 이것에서 저것의 확대재생산이 가능하다. 소설이 영화로, 한 편의 시가 광고로, 또 퍼포먼스로 확대되고, 그것이 다른 방식의 문화적 향유를 가능케 한다. 예술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한 상업광고가 기억나는데 '발효과학'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다. 김치냉장고였을 것이다. 다소 낯선 비유이기 는 하지만, 이 현란한 초(超) 대중문화 시대에 인문주의의 정수인 책이 단순한 생존이 아닌 재생산이 가능하려면, 나는 그렇게 발효하는 책의 오래된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은 어떻게 발효할 수 있을까. 나는 밀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발효하는 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보자.

《걸리버 여행기》는 한국 독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아일랜드 작가 조나단 스유프트의 정치풍자 소설이다. 하지만 이 소설은 거의 모든 대중독자들에게, 유년시절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비슷하게 공상적 모험기로 읽혀졌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풍자적인 정치소설의 완역판을 본 것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유년시절에 읽었던 걸리버 여행기는 요즘도 흔하게 출판되는 어린이용 그림책이었다. 한 거인이 누워있고, 재미 같은 소인들이 걸리버의 온몸을 촘촘하게 묶고 있는 풍

경. 이 걸리버의 풍경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도 흔하게 보았고, 몇몇 광고에도 차용된 바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완역판 《걸리버 여행기》를 읽고 나는 이 책이 집중적으로 알레고리화하고 있는 18세기 대영 제국에 대한 뽀족하고도 멀티한 체제비판을 읽고 나서 대단히 놀랐던 기억이 있다. 요컨대 걸리버가 소인국과 대인국을 오가면서, 크기의 문제가 상대적이라고 진단한 것은 요새 말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우의적 비판이고, 영국식 제국주의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스유프트의 격렬한 문제의식이 담겨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이다.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는 7세 이하의 어린이부터 70세의 노인까지 제 각기의 감흥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책을 일컬어 나는 '발효하는 책'이라고 명명한다. 이 발효하는 책들이야말로, '원 소스 멀티 유즈'를 요구하는 대중문화 시대 이전부터도 멀티 텍스트였다. 가령 지구적 텍스트인 《성경》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 《성경》이란 텍스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갈등과 신화소(神話素)들이 응축되어 있다. 그리스 신화를 포함한 신화 서사 역시 그러하다.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문화적 양식들은 이 '발효하는 책'에서 뻗어나갔다.

또 다른 개인적 체험을 이야기하자. 얼마 전 임상수 감독의 《오래된 정원》을 보았다. 영화는 다소 실망스러웠는데, 그리고 나서 읽은 황석영의 원작 소설 《오래된 정원》은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대단히 새롭게 느껴졌다.

그 이유를 완벽히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겠다. 소설을 다시 읽어보니, 임상수 감독의 영화가 소설의 골격을 비교적 성실하게 장면화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화 속의 인물들이 내 뱉는 대사는 모두 소설에서 온 것이었다. 그런데 영화는 심심하게

느껴졌다. 무슨 까닭일까.

황석영의 원작소설을 읽으니, 그것이 확인해졌다. 일단 영화는 소설이 묘파해내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섬세하게 표출할 수 없었다. 언어를 통한 마음의 섬세한 묘사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을 장면화하자면, 결국 등장인물의 표정, 배경음악, 그리고 조명의 조도 등의 시청각적 기교를 동원해야 한다. 문자언어를 시청각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살릴 수 있지만, 끝까지 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이 소설의 가장 강력한 매력이다.

가령 이런 것이다. 영화 《오래된 정원》에는 된장국을 먹는 장면이 제시된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 맛과 냄새를 감지할 수 없다. 그런데 소설은 그것을 이렇게 제시한다. “조개가 입을 열고 국물이 뽀얗게 나오면 된장도 곁이 아닌 속의 누렁고 부드러운 것으로 퍼내어 체에 걸러 죽에 푹 어주고 작고 모나게 썰어둔 두부 조금과 파를 넣으면 된다. 맨 나중에 썩갠 여린 놈으로 몇 줄기 넣으면 향내가 난다. 양념장을 숟가락 끝에다 조금씩 떠서 귀퉁이부터 한 두어 숟갈 분량만큼 비벼가면서 먹어야 한다.” 이것이 황석영이 소설 속에서 서술한 ‘된장국의 면모’인데, 이것의 영화적 묘사는 사실 불가능하다. 내가 요리연구가라면, 《오래된 정원》에 나타난 황석영식 요리법이라는 책을 썼을 것이다.

요컨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것이다. 대중문화 시대의 책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몇몇 출판평론가들은 중간독자를 이야기하고, 매뉴얼을 이야기하는데 그조차도 일본 출판계의 앞선 경향을 추수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중화다. 그래서 필자들의 대중화법, 또는 구어법이 강조되던 시절도 있었다.

나의 생각은 다르다. 나는 이 대중문화 시대의 책의 길

은, 이 통념적인 흐름을 역류해서 오히려 ‘발효하는 책’을 생산하는 데 있다고 본다. 발효는 밀도에서 온다. 가령 밀도 높게 응축한 메주를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출판현실은 이 발효를 가능케 할 콘텐츠의 밀도를 우습게 보는 듯하다. 한국 출판의 문제는 이 ‘발효’를 가능케 하는 ‘밀도’에 무심하다는 데 있다. 문제는 여전히 책의 밀도인데, 밀도는 없고 불어터진 넓이만을 생각하고, 당장의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동향에만 쏠려있다. 왜 ‘발효하는 책’의 원질에는 무심하고, 불어터진 부피에만 집착하는가. 출판계에 묻고 싶다. 제대로 된 소스가 없는데, 무슨 멀티 유즈란 말인가. 말해 보라. **★**